

국립국어연구원 소식

1. '한메 이윤재 선생 기념 문집' 발간

우리 연구원에서는 '92년 10월의 문화 인물 이윤재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되돌아보고, 우리말을 같고 닮음에 전심전력한 선생의 뜻을 이어받자는 의미에서 '한메 이윤재 선생 기념 문집'을 발간하였다(1992. 10. 9.). 이 문집에는 선생을 추념하는 글 세 편과 선생이 어문 규범, 사전 편찬, 국사 연구와 관련하여 쓴 글 열 편 등이 실려 있다.

2. 문화부, 두음 법칙 등 맞춤법 문제 심의 결정

국어심의회 한글분과위원회는 1992년 10월 19일(화) 국립국어연구원의 심의 요청에 따라 두음 법칙과 관련한 북한 지명, 인명의 표기 문제 등 한글 맞춤법에 관한 두 가지 안전에 대해 심의 결정하였다.

이날 열린 국어심의회는 북한의 인명, 지명 등 고유 명사라도 한글 맞춤법 제10항~12항에 따라 어두에 'ㄱ'음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리득춘(李得春)', '량강도(兩江道)', '로동신문(勞動新聞)' 등은 '이득춘', '양강도', '노동신문' 등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는 북한의 맞춤법을 따르고 있는 중국 등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심의회에서는 '아래 아(·)'를 상호나 모임의 이름 등에서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는 국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임을 밝히고 '아래 아(·)'를 사용하지 말아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3. 표준 화법 확정

국어심의회 한글분과위원회는 국어의 표준 화법을 확정하였다(1992. 10.

19.). 표준 화법은 호칭어·지칭어, 경어법, 인사말 등의 생활 언어에 관한 총 27개 주제로 되어 있다.

이 표준 화법은 우리 원이 조선일보사와 공동으로 1991년 12월에 출판한 ‘우리말의 예절’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마련한 ‘표준 화법 시안’을 일부 수정하여 확정한 것이다. 이번에 표준 화법이 확정됨으로써 가정과 사회에서 혼란을 보이고 있는 호칭어·지칭어, 인사말, 경어법 등과 관련된 국민 언어 생활에서의 불편을 덜어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4. 식생활 관련 용어 순화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위원회에서는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종합 추진하고 있는 ‘국민 식생활 문화 개선 운동’과 관련하여 식생활 순화 대상 용어를 최종 심의 확정하였다(1992. 11. 6.). 이번에 심의 확정하여 발표한 용어는 모두 341 단어(순화 용어 281 단어, 어문 규정에 맞게 쓰도록 한 용어 60 단어)이다.

한편, 우리 원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1991년에 한식집, 중국집, 일식집, 양식집, 분식집 등 서울 시내 80여 곳 대중 음식점, 시장, 백화점, 잡화상의 식품부, 교과서 및 각종 요리책에 사용되고 있는 식생활 관련 용어 4,000여 개를 조사하였고, 조사된 용어들 가운데 순화 대상 용어(외래어, 외국어, 한자어 등)와 어문 규범(맞춤법, 표준어,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용어들을 선정 검토하여 그 검토 의견서를 문화부에 전달한 바 있다(1991. 10. 7.).

5. 행정 용어 순화

총무처에서는 행정 용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252호)에 따라 순화 대상 행정 용어를 검토해 줄 것을 문화부에 요청하였다(1992. 6.). 이에 따라 우리 연구원에서는 대상 용어들을 1992년 6월부터 10월에 걸쳐 기초 검토한 후, 일곱 차례(1992. 11. 20, 11. 21, 11. 22, 11. 25, 11. 28, 12. 1, 12. 5.)의 순화 대상 행정 용어 검토 소위원회를 열어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검토한 용어들은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확정하였다(1992. 12. 15.).

이번에 검토, 순화한 용어는 이미 발간된 행정 용어 순화 편람 및 법령 용어 순화 편람에 수록된 용어 5,973 단어와 '92년도 각급 기관으로부터 추가로 수집된 용어 3,246 단어를 합한 총 9,219 단어이다.

6. 국어문화학교 제4기 및 특별반 강좌 개최

우리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한국어문진흥회와 공동으로 지난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간 국어문화학교 특별반 강좌를,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 간 국어문화학교 제4기 강좌를 개설하였다. 특별반은 출판사에서 교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 직업인을 대상으로 현행 어문 규범에 대한 교육과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제4기 국어반과 번역반에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어문 규범과 국어 순화, 언어 예절, 번역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 교육하였다.

특별반에는 계몽사, 민중서림, 삼성출판사, 예림당, 웅진출판사, 을유문화사 6개 출판사의 교열 담당자 10명이 참석하여 강의와 더불어 규범의 해석과 구체적인 적용 문제에 대해 토론하였으며, 제4기 국어문화학교에는 국어반 16명, 번역반 11명이 교육을 받고 수료하였다.

수료자들은 한결같이 국어문화학교와 같은 우리말과 글에 대한 사회 교육의 장이 확대되어야 하며, 나아가 국어연구원이 적극적으로 이런 활동을 강화해 나가길 요청하였다. '92년도의 국어문화학교는 이번 4기로 종결하고 내년에는 수료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반영하고 올해에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홍보함으로써 좀더 많은 사람들이 충실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7. 동구의 5 개 언어 외래어 표기법 확정, 고시

문화부는 1992년 11월 27일 외래어 표기법에 폴란드 어, 체코 어, 세르보 크로아트 어, 루마니아 어, 헝가리 어 등 동구의 5 개 언어의 외래어 표기법을 추가하여 새로 고시했다. 80년대 후반 들어 동구권 국가들과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동구권의 언어, 특히 동구권의 지명, 인명을 한글로 표기해야 할 경우가 많아졌으나 1986년에 고시된 외래어 표기법은 동구권 언어의 한글 표기에 대한 규정을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아서 외래어 표기 용례집(지명·인명)에 수록되지 않은 동구권의 지명, 인명에 대해서는 표기의 혼란이 야기되어 왔다. 따라서 동구권의 지명, 인명을 원지음에 가깝게 표기하기 위해서는 이들 언어의 특성을 반영한 표기법이 외래어 표기법에 추가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국립국어연구원은 개원 첫해의 사업의 하나로 동구권 언어 중에서 표기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고 우리 나라에 해당 언어의

전문가가 있는 폴란드 어, 체코 어, 세르보크로아트 어(유고슬라비아의 주요 언어), 루마니아 어, 헝가리 어 등 다섯 언어에 대해서 한글 표기법을 작성하기로 하고, 이민우 연합 통신 논설 위원, 강덕수 외대 노어과 교수, 정병권 외대 폴란드어과 교수, 김규진 외대 체코어과 교수, 김성환 외대 유고어과 교수, 이문수 외대 루마니아어과 교수, 이상철 외대 헝가리어과 교수를 자문 위원으로 위촉하여 시안 작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자음 앞의 파열음을 받침으로 적을 것인지 ‘ㅡ’를 붙여 적을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맞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은 복수안으로 하여 1992년 3월 10일 시안을 문화부에 제출하였다. 1992년 4월 21일에 열린 국어심의회는 이를 심의하였는데 국어연구원안을 추인하면서 복수안에 대해서는 국어연구원이 더 연구하여 결정을 내리도록 하였다. 국어연구원은 복수안으로 올려진 문제에 대해 검토한 뒤 한 차례의 자문회의를 더 열어 최종안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를 문화부에 제출하여 문화부가 1992년 11월 27일자로 고시하게 된 것이다. 이번의 외래어 표기법 고시에도 불구하고, 1986년에 고시된 현행 외래어 표기법은 아무런 변동이 없으며 다만 폴란드 어, 체코 어, 세르보크로아트 어, 루마니아 어, 헝가리 어의 표기법이 추가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외래어 표기 용례집에 이미 올라 있는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헝가리의 지명, 인명 중의 일부 용례는 이번 표기법 고시에 따라 변경된다. 동구의 5개 언어 외래어 표기법의 고시에 이은 동구권 지명, 인명의 표기 용례 심의에서 표기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굳어진 지명, 인명에 대해서는 관용을 인정하게 된다.

8. 제5차 한·중·일 통합 한자 연구 그룹 국제 회의 참석

1992년 11월 30일에서 12월 4일까지 하와이에서 제5차 CJK-JRG(Chinese Japan Korea-Joint Research Group) 국제 회의가 열렸다. 공주대학교 현규섭 교수를 단장으로 하여 공업진흥청의 오영택 과장, 문화부의 임원선 계장, 동양학연구소의 서지원 위원, 한국 IBM의 김철 차장, 우리 원의 조남호 연구원이 한국측 대표로 참석하였다.

CJK-JRG는 국제 표준화 기구(ISO)에서 추진하는 국제 문자 세트(Universal Multiple-Octet Coded Character Set)에 포함될 통합 한자 세트를 협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 한국, 중국, 일본 외에 대만, 홍콩, Unicode, AFII(Association for Font Information Interchange)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부터 베트남이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자 세트를 확장하는 문제에 관해서 주로 논의하였으며, 이미 국제 문자 세트에 포함된 한자 세트의 사용자 안내서를 만드는 소그룹을 따로 결성하였다. 확장과 관련해서 한국측은 그 동안 문화부와 공업진흥청의 지원을 받아 선정한 한자 6,664자——국가 표준으로 선정되지 못하여 한국측 자리에 배치되지 못한 한자 4,377자와 한자 세트에 새로 추가해야 할 2,287자——를 제출하였다. 한자 세트를 확장하는 방법에 대해 한국측과 일본측이 날 카름게 대립하였으나 한국측 주장대로 국가 표준으로 제정될 한자 세트(한국의 경우)는 기존 세트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제6차 회의는 1993년 6월 말, 7월 초 일본에서 열기로 하였고, 제7차 회의는 1993년 12월 베트남에서 열기로 하였다.

9. 기증받은 책

책 이 름	편, 저자 이름	받은 날
新聞 研究, 50	寬勳 클럽	92. 9. 23.
알타이학보, 3	서울대학교 알타이학회	"
人文論叢, 27	서울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
國會圖書館報	國會圖書館	92. 10. 1.
도서관, 321	국립중앙도서관	"
放送과 言語	李應百	92. 10. 5.
문예 연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教育過程 評價 道具 開發 研究	韓國敎員大學校 教育研究院	92. 10. 5.
대학원 교과 실라버스, 1	韓國敎員大學校 教育研究院	"
教授 論叢, 7-2	한국교원대학교	"
新聞 研究, 46	寬勳 클럽	"
새국어교육, 45	한국국어교육학회	"
법령 용어 순환 편람, '90	법제처	"
중국 조선어문, 57	中國朝鮮語文雜誌社	"
중국 조선어문(합본), 41~46	"	"
北韓 '말다듬기' 資料集	極東問題研究所	"
北韓 言語 政策 資料集	"	"
北韓 '말다듬기' 資料集	中央情報部	"
北韓의 政治 經濟	國土統一院	"

책 이 름	편, 저자 이름	받은 날
北韓 및 周邊 動向 日誌	國土統一院	92. 10. 5
어느 가정의 예의 범절	강신항 정양완 공저	"
더불어 기쁘게 사는 삶	"	"
문헌 정보, 220	국립중앙도서관	"
한글 문건	김석환	"
현토 주해 훈민정음	"	"
文化 遺蹟 解說	天安郡 文化院	92. 10. 28.
東洋學, 22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
KOREA JOURNAL, 32-3	KOREAN NATIONAL COM- MISSION FOR UNESCO	"
東方學志, 75	延世大學校 國學研究院	"
정신 문화 연구, 48	한국 정신 문화 연구원	"
정신 문화 연구, 47	"	"
統一 問題 研究, 15	統一院	"
방송 언어 순화 자료	한국방송공사	"
한국 전래 동화집, 1~15	이원수, 손동인	"
우리말 큰사전, 제1권~제4권	한글학회	"